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미래전략연구부 김동영 연구위원
(063-280-7174, 010-4121-1210)
- **담당실장**: 기획조정실장 김보국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61)

보도시점 : 2017년 5월 26일(금)부터

농생명-제3금융-공간문화지식서비스

전북혁신도시 3대 허브 전략 제시

전북연, 농업안전클러스터, 금융중심지 지정 등 24개 사업제안
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전략에 맞춰 ‘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계획’ 정책브리프(2017. 5. 26)를 발간했다.
- 전북혁신도시는 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인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어 향후 혁신도시의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화된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.
- 전북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의 기관특성을 전라북도 지역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허브, 제3 금융허브, 공간·문화 지식서비스허브 세 분야의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14개 시·군 전체로 확장하는 트라이앵글 허브전략을 제시했다.
- 농생명 허브육성은 농생명 신산업육성, 농생명 교육혁신파크조성, 지역농업특성화 3대 전략하에 국립농업치유원 설립, 농업안전클러스터 조성 등 11개 사업이 제안됐다.

- 제3 금융 허브육성은 연기금 특화 중심지 조성, 농업금융 기반 구축 2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북국제금융센터건립,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이전 등을 통한 농업금융 거점조성 등 5개 사업을 제안했다.
- 공간·문화 지식서비스허브육성은 스마트 행정고도화와 지역서비스 밀착화 2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기안전실증단지 조성, 해양지역 공간정보 실증지구 조성 등 8개 사업을 제안했다.
- 인프라와 관련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전라선을 활용한 새만금-군산-익산-전주 간 트레인 확충 및 전주역, 전북혁신도시, 김제역으로 이어지는 트램노선을 신설하는 트램-트레인 건립이 추가로 제안됐다.
-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육성정책에 대비하여 AI, AR, IoT, 로봇, BT 등 첨단기술들을 전통농업에 접목시킨 제조형 농업벤처의 육성과 비즈니스, 전시·체험, 교육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농업혁신 생태계 모델로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을 제안했다.
-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인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정책과 관련하여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관련 농자재, 식품, 유통 및 금융관련 자산관리, P2P금융, 인터넷 전문은행 등 대기업 유치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.
- 김동영 박사는 “문재인정부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전북혁신도시의 전라북도 연계발전전략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